

經濟開發 5個年計劃을 成功시키는 길

金 裕 澤

차 례

1. 5個年計劃의 意義
2. 5個年計劃의 主要內容
3. 計劃을 成功시키는 길

- 가. 所要外資의 確保
- 나. 內資의 動員
- 다. 耐乏生活
- 라. 企業家精神 및 技術의 向上
- 마. 經濟의 安定

1. 5個年計劃의 意義

5個年計劃은 窮極的으로 우리나라의 經濟的自立을 達成할수 있는 基盤의 構築을 目標로 하고 있다. 흔히 自立經濟라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安易하게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먼저 自立經濟를 達成하기 爲하여서는 얼마만한 努力이 必要한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 經濟가 가지고 있는 構造的인 諸難點을 說明하는 것이 될 것이다.

革命後 우리는 많은 改革과 前進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經濟의 構造的인 諸難點은 一朝一夕에 解消되는 것은 아니므로 우리의 이제까지의 努力에도 不拘하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첫째 우리는 相對的으로 自然資源은 豊富하지 못한 데 比하여 많은 人口를 扶養하여야 한다. 이것은 곧 失業 및 潛在的失業人口가 많은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둘째, 產業構造의 跛行性을 들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產業性이 높은 二次產業이 占하는 比率은 적으며 生産性이 낮은 農業과 많은 失業人口의 存在를 反映하여 三次產業의 比重이 壓倒的으로 되어 있다. 더우기 農業生産方式에 있어서는 아직도 原始生産의

領域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天候條件 如何에 支配되고 있다.

셋째, 資本의 不足을 들수 있다. 民族資本의 蓄積이 零細한데다가 技術水準마저 낮은 우리나라는 解放後 數次의 資本蓄積의 好機를 逸失하여 5.16 革命에 이르렀던 것이다. 5個年計劃에 있어서는 資本이 最稀少要因이 되고 있다.

넷째, 우리나라는 해마다 莫大한 國際收支의 逆轉을 繼續해 왔으며 이를 援助로 메꾸어 왔던 것이다. 總輸入需要의 10% 未滿의 商品輸出能力으로서 對內, 對外的으로 自立經濟란 먼 앞날의 이야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밖에도 우리나라는 地理的條件에 依하여 共產主義와 直接 對置하고 있는 關係로 莫大한 國防負擔을 強要當하고 있다. 이와같이 脆弱한 國民經濟의 興件을 克服하여 目標하는바 急速한 經濟成長을 達成하기 爲하여서는 不用資源을 效率的으로 配分하고 行政的 努力과 全國民의 經濟活動을 同一한 目標에 集約시키는 指標가 必要한 것이다. 長期經濟計劃의 樹立과 그 꾸준한 執行만이 오늘의 貧困에서 벗어 날수 있는 唯一한 手段이라는 것은 이와같은 點에 起因하는 것이다.

視野를 國外로 돌려보면 이와같은 우리의 試圖는 오히려 늦은 感이 없지도 않다. 예컨대 印度는 解放後만 하더라도 饑餓와 貧困과 莫大한 人口, 그리고 文盲等으로 絕望의 나라라고 불리웠던 것이나 獨立後 이미 第1次 및, 第2次의 5個年計劃을 遂行하고 오늘날 第3次 5個年計劃에 突入하면서는 經濟的自立과 獨立을 希望으로 期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리하여 長期經濟開發計劃의 試圖는 오늘날 後進狀態를 急速하게 克服하고 經濟的發展을 期하려는 大部分 後進國의 一般的인 傾向이 되고 있으며 또한 先進諸國에 있어서는, 計劃의 性格에는 差異가 있으나 實施되고 있다.

또한 우리의 5個年計劃은 우리經濟의 構造的인 諸矛盾을 短時日內에 克服하고 自立經濟를 達成하려는 우리의 決意를 闡明하는 것이며 國際的으로도 經濟의 急速한 發展을 達成하려는 여러나라에 발맞추어 나아 간다는데 그 意義를 찾을 수 있다.

그러면 5個年計劃은 어떠한 內容으로 되어 있는가를 簡單히 살펴 보고자 한다.

2. 5個年計劃의 主要內容

5個年計劃의 基本問題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經濟의 自立的 成長과 工業化에의 基盤造成에 있고 이러한 基本目標은 安定된 틀 안에서 이루어야 한다. 또한 5個年計劃은 自由經濟體制를 原則으로 하면서 強力한 計劃性을 加味하는 것으로서 어디까지나 民間企業의 自由와 創意를 尊重하게 될 것이지만 民間企業이 擔當할 수 없는 重要産業에 對하여서는 政府가 積極的으로 關與하거나 間接的으로 이끌어 均衡的인 成長을 이룩하도록 指導的인 役割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5個年計劃은 主로 公共部門을 中心으로 하고 있으며 民間部門에 對해서는 自發的인 活動을 刺戟하도록 하고 있다.

經濟의 自立的成長은 窮極的으로 産業의 近代化를 통한 工業化에 依하여서만 達成될 수 있다. 따라서 5個年計劃은 工業化에의 基盤을 構築하기 爲하여 다음과 같은 順位로 開發의 重點을 두고 있다.

첫째 電力, 石炭等 工業化의 原動力이 되는 “에너지” 資源의 確保에 最大의 努力을 기울이게 되며, 둘째 農業部門에 있어서의 生産力의 向上과 所得增進을 꾀하고, 셋째 基幹産業과 社會間接資本의 擴充에 커다란 比重을 두며, 넷째 國土開發事業을 繼續推進하여 國土의 保存과 遊休勞動力을 吹收하며, 다섯째 國際收支의 改善을 爲하여 輸出을 增大시키며, 끝으로 低生産力을 克服하기 爲하여 技術增進에 注力하게 된다.

計劃期間中の 經濟成長率은 年平均 7.1%로서 國民總生産은 計劃期間中 40.8%가 增加하게 된다. 이것을 産業別로 보면 第 2次産業部門이 期間中 約 102% 增加하여 全産業成長의 主導的役割을 하게 되고, 第 1次産業은 35.8% 第 3次産業은 20.3%가 成長하도록 計劃되고 있다. 그리하여 國民總生産에서 차지하는 2次産業의 比重은 基準年度(1960)의 18%에서 目標年度에는 26%로, 上昇되며 1次産業은 36%에서 35%로 3次産業은 46%에서 39%로 變動하게 된다. 여기서 1次 및 3次産業의 比重이 相對的으로 低下되는 것은 工業化를 指向하는 이 計劃의 目標에 따라 2次産業의

急速한 成長에 基因하는 것이며 生産의 絕對額의 減少를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위와같은 成長目標을 達成하고 産業構造를 漸次 現代化하기 爲하여는 計劃中 約 3,200 餘億원의 投資資金을 所要로 한다. 이와같은 莫大한 資金은 各各 1次産業에 554 餘億원으로 全體의 17%, 2次産業은 1,022 億원으로 34%, 3次産業에는 1,568 億원으로 49%가 投資된다.

投資財源은 政府와 民間으로 나누어 보면, 計劃期間中 政府가 56%, 民間이 42%를 調達하여 政府財源이 過半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것은 策定된 經濟成長을 誘導함에 있어 政府가 하여야할 役割의 至大함을 表示하는 것이다.

그러나 投資主體別로는 政府는 期間中 35%를 차지하고 民間은 65%를 차지하고 있어 政府의 比重이 떨어지는바 이것은 財源은 政府가 負擔되 企業活動은 民間이 하도록 함으로써 民間企業活動을 促進하는데 政策的인 意圖가 있는 것이다.

投資財源을 內資와 外資로 나누어 보면 外資는 基準年度의 99億원에서 目標年度에는 179億원으로 增加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總投資에 對한 外資의 比率은 基準年度의 32%에서 目標年度에는 25%로 減少된다. 그리하여 投資財源中の 外資가 차지하는 比率은 計劃期間中 平均 28%가 되는데 이속에는 우리나라 保有弗에 依하여 投資될 部分도 包含하고 있으므로 이를 除外한 純外部財源에의 依存率은 18%에 不過하다.

이것은 우리 自身의 努力에 依하여 投資財源을 마련하려는 決意의 表示이나 目標年度의 國民總支出은 約 3,300億원으로 約 40.8%가 增加되나 政府消費支出은 35%, 民間消費支出은 18%만이 增加하도록 되어있는 反面 投資支出은 744億원으로 137%가 增加되어 國民總支出에 對한 投資의 比率이 基準年度의 14%에서 目標年度에는 23%로 增加하도록 한 計劃에서 이를 찾아 볼 수 있다.

3. 計劃을 成功시키는 길

위에서 大略 살펴본바와 같이 5個年計劃은 意慾的인 것으로 政府는 勿論 全國民의 舉族的인 努力의 集中없이 成功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計劃을 成功시키는 길은 한마디로 말하여 政府와 國民의 一致된 努力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說明하기로 한다.

가. 所要外資의 確保——後進經濟를 工業化함에 있어 資本은 必要한 全部는 아니라 하더라도 가장 重要한 要因인 것이며 그중에서도 資本財를 獲得하기 爲한

外資의 確保는 가장 重要한 要因인 것이다. 生産施設을 建設함에 있어서는 一定한 資本과 勞働, 그리고 技術이 結合하여 비로소 可能한 것인데 이中 生産財의 一部는 內資만으로서는 調達할 수가 없고 外資에 依해서만 導入될 수 있다. 外資는 輸出에 依하여서는 獲得되나 우리나라의 現實情으로서의 輸出만에 依存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借款을 獲得하여 이에 充當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다 有利한 條件의 財源을 發見하여 必要한 外資를 獲得하도록 強力한 經濟外交를 展開하여야 할 것이다.

나. 內資의 動員——投資財源의 一部는 外撥과 借款으로 充當한다고 하나 外資借款은 窮極的으로는 우리 自身의 貯蓄에 依하여 償還되어야 하며 또한 投資財源의 大部分은 內資인 것이다. 內資의 動員方法은 租稅나 赤字財政等 여러가지 方法을 생각할 수가 있으나 最上의 方法은 政府와 民間의 消費를 抑制하여 貯蓄을 增大하여 調達하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이들 動員된 資本을 不動產投資나 流通過程에 投入하지 않고 資本形成에 寄與하도록 即 生産施設의 擴充強化에 投資되도록 效率的으로 誘導되어야 한다. 따라서 國民各者는 貯蓄의 增大에 努力하여야 하며 政府는 이를 貯蓄된 資本을 生産的인 投資와 連結되도록 制度를 補充強化하여야 할 것이다.

다. 耐乏生活——위에서 본바 莫大한 資本을 調達하기 爲하여서는 結局 耐乏生活을 통한 消費의 抑制가 前提되어야 한다. 貯蓄이란 所得中 消費한 後의 殘餘를 말하는 것이므로 自發的 貯蓄에 依하든, 強制貯蓄에 依하든 消費水準을 抑制하지 않고서는 實質的으로 貯蓄은 不可能한 것이다. 그런데 5個年計劃을 民間消費를 計劃期間中 18%만의 增加를 하도록 計劃하고 있는데 여기서 人口增加率을 勘案한다면 實質的인 消費水準을 每年 1%이하의 增加로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다.

耐乏生活은 單只 資本의 動員面에서 뿐만아니라 資源의 配分및 外換面과의 關係도 가지고 있다. 例컨데 奢侈性物品에 對한 需要가 늘어 난다면 그 物品을 生産하는 工業이 <일어 날> 것이며 그 製品의 原料가 外國原料라면 그만큼 外換이 割當되어야 하는 것이다.

要컨데 消費는 이른바 展示效果에 依하여 容易하게 習得할 수 있는 것이나 生産力의 發展이 이를 뒤따르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이問題의 解決은 더욱 어려운 것이 되며 한便 이를 解決하지 않는다면 바라는 바 經濟的發展은 期待할 수 없게 된다. 事實 먹을 것을 다 먹고 입을 것을 다 입는다면 어느 餘暇

에 資本을 蓄積하여 經濟的發展을 期待할 수 있겠는가?

라. 企業家精神및 技術의 向上, 다음의 問題는 資源을 生産的으로 結合하는 企業家精神과 技術의 向上에 關한 것이다. 企業은 結局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며 또한 生産施設의 擴充, 다시 말하여 實質的인 資本形成은 企業을 通하여서만 可能하다. 또, 生産施設을 擴充하여 諸生産要素를 結合, 生産物을 產出함에 있어서는 技術이 問題가 된다. 生産力의 向上은 資本蓄積이 어느 程度에 까지 到達한 以後에도 技術能力에 依하여 實質的으로 左右되는 것이다. 여기에 企業家精神과 技術의 向上이 重要한 問題로 提起되는 理由가 있다.

그런데 一般的으로 後進國은 有能한 企業家가 적으며 技術水準이 낮은 關係로 同一한 資本을 投下하더라도 先進國에서와 같은 生産의 増大를 보지 못하는 例가 왕왕 있다. 그러므로 政府는 特히 이에 關한 助長政策을 講究하고 企業은 經營技術의 向上및 技術能力의 發展에 全力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마. 經濟의 安定——끝으로 가장 重要한 것은 經濟의 安定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經濟의 安定은 모든 開發計劃을 效率的으로 遂行함에 있어서의 前提가 되는 것이므로 如何히 計劃期間中 經濟의 安定을 維持하느냐가 5個年計劃의 成敗를 左右하는 關鍵이 된다.

그러나 開發計劃과 經濟의 安定은 相反되는 概念으로서 어느 한쪽을 強調하면 어느 한쪽은 犧牲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5個年計劃은 急速한 經濟的發展을 指向하면서도 經濟安定의 테두리 안에서 이를 遂行하여야 한다는 原則에 서있는 것이다.

우리는 解放後 數年間을 累增的인 인플레이의 重壓에 시달려 왔으며 現在도 人플레이의 壓力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政府는 經濟安定에 가장 重點的으로 施策을 講究하여 가게 될 것이다.

4. 맺는 말

以上 우리의 5個年計劃의 意義와 內容 그리고 計劃을 成功的으로 遂行하기 爲한 方途를 簡略히 살펴 왔는데 要는 어느 程度 政府와 國民이 이 計劃을 成功하기 爲하여 一至된 努力을 傾注하느냐에 計劃의 成敗는 달려 있는 것이다. 經濟的發展은 피와 땀의 結晶 또는 어떠한 代價없이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強調하고자 한다.

著者: 前經濟企劃院長